



[산업] 현대차 혼라이프 SUV '베뉴' 출시 06



Economy

코스피	2080.58 (+21.80)	코스닥	677.09 (+10.19)
금리 (미국 3년)	1.42 (-0.02)	환율 (원/달러)	1173.50 (+8.10) (11일)

정부정책 백약이 무효 체질개선 없인 도루묵

애플, 삼성에서 中으로 올레드 패널 교체 추진 韓日 무역전쟁 틈타 中 반도체굴기 고개

도돌이표 韓 증시

(中) 힘 잃은 증시 활성화 정책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펼쳤던 각종 정책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을 준비하는 새로운 제도도 정당성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내린 지난 6월부터 10일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8조7944억원을 기록했다. 1월부터 5월까지 일평균 거래대금(9조5315억원)보다 오히려 7.73% 줄어든 것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율도 0.30%에서 0.25%로 내렸지만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 5000억원은 어디로?

지난해 10월, 갑작스런 증시 급락으로 '검은 목요일'을 연출하자 정부가 '스케일-업 펀드' 규모 확대라는 조치를 내렸다. 당초 2000억원 계획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11월부터 투자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이어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9일 629.70까지 떨어졌던 코스닥 주가는 766.75(4월 15일)까지 올랐다. 이후 일본의 무역 제재, 바이오리스크가 발생하자 지수는 꾸준히 하락했다. 현재 주가(666.90)를 기준으로 5000억원의 정책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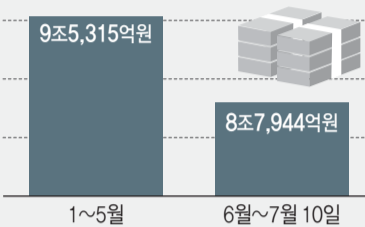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자금만으로는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증시의 체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도루묵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코스닥벤처펀드'도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설정액을 보유한 'KTB코스닥벤처펀드'는 연초 이후 1114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에셋원공모주코스닥벤처펀드'는 121억원, '브레인코스닥벤처펀드'는 111억원 이상이 빠져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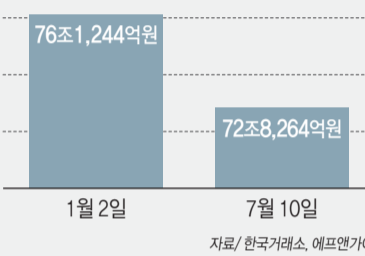
첫 출시 이후 3주 만에 약 2조원(사모 1.5조원, 공모 5000억원)의 자금이 물리는 흥행을 기록했지만 도입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설정액은 그때와 다를 바 없다. 증시 급락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서둘러 환매에 나섰다기 때문이다.

◆ 공모펀드·퇴직연금 개혁

코스피·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



국내·외 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



자료/한국거래소, 에프앤가이드

금융투자업계는 하반기부터 '공모펀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외 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은 72조8264억원이다. 설정액 규모는 올해만 4.3% 줄었고, 5년 전보다도 1조896억원 줄었다. 증시 부진과 그에 따른 기관투자자 수급 부족 등이 주요 이유로 풀이된다.

때문에 금융투자업계는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내놴다. 디폴트 옵션 제도란 가입자가 직접 지시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90% 이상 채권,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에 몰려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일부 넘어오면서 기대 수익률도 높이고 자본

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자본시장 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는 상반기 중 디폴트 옵션제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놴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관련 법안이 제출되거나 한노위(한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디폴트 옵션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후 자금으로 쓰일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심지어 디폴트 옵션에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되면 디폴트 옵션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中 반도체 산업, 日 규제 반사이익 혁신회하락에 대안 공급처로 주목

중국 반도체 굴기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다. 미중무역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빈틈이 생기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애플은 최근 중국 BOE에 올레드 패널 공급을 문의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올레드 패널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일본 수출 규제가 중국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앞서 외신들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다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해왔다. 실제로 중국 업체들은 최근 들어 다시 반도체 굴기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YMTC가 올해에는 64단 낸드플래시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푸젠진화도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며 추격을 시작했다.

미국 제재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안



인텔은 최근 교육용 신경망 프로세서 개발 협력 파트너로 선정했다. /인텔

보에 특별히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웨이에 부품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미국 기업 상당수는 화웨이 제재에도 중국과 깊은 관계를 이어왔다. 오히려 인텔은 이달 초 바이두를 교육용 신경망프로세서(NPP-T)인 '너바나' 개발 파트너로 선정하는 등 관계를 확장하기도 했다. 미국이 제재를 완화한 배경에도 미국 IT 기업들의 끈질긴 로비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일단 시장은 당장 중국 반도체가 국내 경쟁력을 위협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양산에 성공한 회사가 전혀 없는데다가, 기술력 수준도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상무는 "아

직 중국이 반도체 양산을 시작하지 않아서 물량을 뺏길 수 없고, 기술력 격차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업계가 부품 수급 문제로 국제 시장에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에 추격 여지를 줬다는 게 관련 업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이 대안 공급처로 주목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내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고, 미국도 동의했다는 비판적인 분석도 나온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11일 '80년 미일 반도체 갈등 사례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언급하며, 장기화와 확대 여부를 확인하려면 미국측 반응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다. 작은 사고로도 거래가 끊길 수 있다"며 "일단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중국 반도체 굴기에 발목을 마련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미래 식품시장 조망 FFTK2019 개최

세스 배년 'FiftyYears' 창업자가 11일 오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관으로 열린 '2019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 2019)'에 참석해 기조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파월 7월말 금리인하 시사에 국내 증시 반등

(美 연준 의장)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가 반등했다. 특히 미국 S&P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하며 추풍을 터트렸다. 경계심이 감돌던 국내 증시도 안심하는 분위기다.

11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21.80포인트(1.06%) 오른 2080.58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이 3627억원 규모를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980억원, 1774억원의 순매도세를 기록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7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된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 마감

하면서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 하원 금융위원회 출석에 앞서 서면 자료를 통해 "최근 몇주간 경제 전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30~31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10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76.71포인트(0.29%) 오른 2만6860.20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는 13.44포인트(0.45%) 상승한 2993.07를 기록했다. 장 초반 한때 3002.98까지 치솟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뚫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60.80포인트(0.75%) 상

승한 8202.53으로 마감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팀은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고조로 강세를 보였다"면서 "낙폭이 과도했던 우량주에 대한 접근이 유효한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완화정책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증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일본 수출 규제가 국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만큼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손업지 기자